

주간기도정보

2024. 11. 12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북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 아들 “결혼식에 아버지 오셨으면”

베를린 북한대사관 앞 석방 촉구 시위에 억류자 가족 처음 참석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진영(34)씨가 지난달 31일 독일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 앞에서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진영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 북한대사관 앞 인도에서 게르다 예를리히 여사(84) 등 독일 기독교인 모임이 여는 선교사 석방 촉구 집회에 이날 참석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일면식도 없고 국적도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 10년 넘게 수고해 주셔서 먼 곳에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며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매주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진영씨는 “힘든 시기 옆에 있어 준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다. 아버지와 다른 선교사 분들이 빨리 풀려나셔서 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오는 12월이면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만 10년이 된다. 그는 중국 단둥 일대에서 북한 주민 구호활동을 하다가 2014년 12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북한은 이듬해 중대한 간첩 혐의가 있다며 최춘길 선교사를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을 돕다가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는 최 선교사와 김정욱(2013년)·김국기(2014년) 선교사 등 3명이다.

독일 기독교인들은 2009년부터 북한 주민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선교사들이 억류된 이후에는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모여 한결같이 ‘기독교인 박해 반대한다’, ‘북한 강제수용소 문을 열어라’, ‘미사일과 핵무기 대신 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소식에 ‘푸틴을 위한 북한 군인은 없다’는 구호가 추가됐다.

진영씨는 이들에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상징하는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달아줬다. 통일부도 집회 참석자 이름을 새긴 감사패를 마련했다. 이날 시위 현장과 전화로 연결된 김정욱·김국기 선교사의 가족들도 집회 참가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감격스러운 만남에 앞서 진영씨 일행은 이날 오전 독일 하원 인권위원장실의 라이너 리페 수석보좌관을 면담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독일 의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리페 수석보좌관은 “독일 하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외벽 미디어 화면에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모습이 송출되고 있다. 영상에는 세 사람이 북한에 붙잡혀 기자회견을 하는 마지막 모습이 잇따라 나오다가 영상은 반전되어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송환됐을 때의 모습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재연되었다. 이번 영상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기획됐다.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을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그 날까지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20초 분량의 영상은 마무리됐다. 선교사들의 미소가 담긴 영상은 11월 한 달간 통일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서울 시내 옥외전광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국민일보 종합).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브리서 13:3)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로마서 5:5-6)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 동포들을 섬기다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넘도록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세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갇히고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세분을 굳게 붙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도록 함께 하여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가족들의 애틋한 마음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아들의 소원처럼 하루속히 석방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 분단된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통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주시어 한반도에 주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북한 ‘젊은 세대’ 활용 사회 활성화 시도 난항

지금의 20대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 되고 있어



최근 북한 당국이 ‘젊은 세대’를 앞세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지만 그 시도가 번번히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청년동맹 부문의 한 소식통은 2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조선사회과학연구원에서 각 도 청년동맹에 연구진들을 파견해 사회 각계에 진출한 20대 청년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실험과 조사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연구진들은 20대가 주류를 이루는 혜산고등기계전문학교, 16-17세 학생들이 공부하는 성후고급중학교와 젊은 노동자들이 많은 혜산청년광산에 머물며 학업 경쟁과 노동 경쟁, 개별적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심리 조사를 실시했다.

소식통은 “사회과학원은 지금의 20대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회과학원에서 올린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고 중앙에서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청년들을 앞세워 나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국의 시도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 있었다. 소식통은 “자원 진출 형식으로 20대 청년들을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파견하고 정세 긴장을 구실로 20대 청년들로 인민군 대 탄원 모임도 요란하게 열어 보았지만, 사회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식통은 “과거에는 영웅이나 선구자를 만들면 젊은 세대가 크게 호응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이익에 맞든 안 맞든 꿈쩍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중앙에서는 사회가 활기를 띠지 못하는 원인을 청년들의 무기력함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젊은이들이 개인주의, 보신주의에 빠져 안일만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는 건데 내가 보기엔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이 이 사회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50대 한 지식인 소식통도 “요즘의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와 완전히 다르고, 30-40대와도 완전히 다르다”며 “요즘 젊은이들은 무슨 일이든 목숨을 걸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 세대가 목숨을 걸고 시청하던 한국 영화나 한국 음악도 요즘 젊은이들은 자주 시청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식통은 “요즘 젊은이들은 항상 자기 주변에 보위부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래서 친구도 많이 만들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우리는 20대에 늘 무리를 지어 몰려다녔고, 새것에 관심이 높아 밀수나 탈북도 서슴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회 공동재산에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고, 사회적인 노동에 극도로 몸을 아끼고, 저항도 하지 않고, 순응도 하지 않는 개인주의자들이 요즘 젊은 세대”라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요즘 젊은이들을 ‘소 잡아 먹은 귀신’에 비유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한편, “소 잡아 먹은 귀신”은 느려 터지고 말이 없어 도무지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북한의 속담이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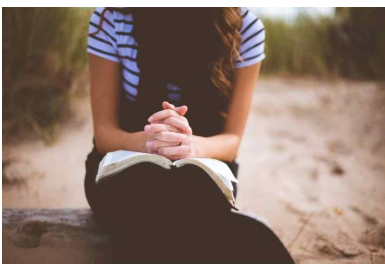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1-2)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잠언 4:6-8)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가 암울하여 삶의 의미와 소망을 찾지 못해 무기력함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청년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보다 젊은이들을 사회 발전 원동력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사회주의 사상에 젖은 정부와 탐심으로 미련한 위정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보위부의 감시와 징벌로 인해 자신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영혼에 우리의 심령 전부를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얻은 자들에게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은혜를 더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인하여 여호와의 경외하는 북한으로 새롭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기독교대 학생들 ‘자발적 기도회’ 곳곳으로 퍼져간다
기도회 교내 참여자 늘고 비신자 학생을 위한 복음전파에 힘써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총장 김운용) 정문에서 시작해 100개의 계단을 오르자 미스바 광장이 나왔다. 6일 정오 채플을 마친 장신대 학부생과 신대원생들이 ‘장신한마음기도회’라고 적힌 가판대를 앞에 두고 큰 원을 만들며 섰다. 낮 12시 시작한 야외 기도회는 30분간 진행됐다.

이날 정오기도회에 참여한 70여 명의 참가자는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찬양과 기도를 반복했다. 점심시간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에 지나가던 교수와 학부모들도 자연스럽게 기도회 일원으로 모여들었다. ‘장신한마음기도회’는 지난해 3명 학생의 자발적 기도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3월 사경회 이후 정재은(27), 배인혜(27), 이기훈(26)씨는 미스바 광장에 모여 사경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도로 이어갔다. 이들의 기도는 ‘이제 역전되리라’는 표어로 계속됐지만 1년간 특별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눈이나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기도를 드렸고 방학이나 공휴일에도 미스바 광장을 지켰다. 올해 3월 그 기도 움직임이 학교를 변화시켰다. 신대원 학우회, 학부 총학생회가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장신한마음기도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씨는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학생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하나님이 다음세대를 살릴 경건한 목자를 세우기 위해 대놓고 작성하신 일 같다”고 회고했다. ‘장신한마음기도회’로 뭉친 이들은 교내 자율적으로 모이는 기도 동아리에도 손을 내밀었다. 학생들의 움직임은 교수와 총장을 움직였고 화-금요일 매일 정오기도회는 물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기도회도 열리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한세대 신학부 앞은 매일 정오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한 학생들로 붐빈다. 같은 시간 학교 출입문 앞에서 노방 찬양을 인도하는 한세대 학생들을 볼 수 있다. 학교 출입문이 두 아파트 단지를 연결하는 곳에 있어 외부인의 이동이 잦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전 10시와 낮 12시 두 차례 외부인과 교내 비신자 학생을 위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다.

총학생회 중심으로 드리던 기도회에 “우리도 기도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외침이 더해져 열린기도회로 전환된 학교도 있다. 목원대는 지난 9월부터 대전 서구 캠퍼스에서 매일 정오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신학대 학생회장 정예훈(24)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도운동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기도의 불이 옮겨붙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교는 지난 4일 배재대 채플실에 모여 대전 내 기독교 세 곳(배재대, 한남대, 대전신대)과 함께 연합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몇몇 학교들이 정오기도회로 일상적 기도의 긴장감을 갖고 있다면 저녁기도회로 깊이 있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서울신학대는 올해 2학기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열린기도회를 드리고 있다. 일반학과가 증가하면서 교내 비신자 비율이 60%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 기독교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2년 전 서너 명의 백석대 학부생들의 기도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매주 월요일 저녁 2시간 이상 기도에 몰입하는 정기적 기도 모임으로 성장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이사야 60:1)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이다 할렐루야(시편 116:17-19)

하나님, 점점 청년세대의 헌신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 주님께 서원한 것을 충성되이 지키며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회를 대학 곳곳에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닮은 선한 목자로 세우사 캠퍼스를 넘어 한국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믿고 시작된 기도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 그리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일깨운 경건의 열매가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한국을 넘어 열방에 퍼져가는 증인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